

#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1년 12월 조사 -

2022년 1월 11일  
 주식회사데이터큐레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 경기 DI는 반 이상의 업종에서 신종코로나 전의 수준을 상회

~ 단 회복속도는 업종간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 ~

(조사대상 2만 3,826사, 유효회답 1만 769사, 회답율 45.2%,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1년 1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3.9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경향이 계속되었으나 업종간 회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는 변이종의 감염동향에 좌우되나 완만한 회복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조』『도매』 등 5개 업계 29개 업종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인 2020년 1월의 수준을 상회하였다. 한편 『건설』『서비스』 등 5개 업계 21개 업종은 하회하였다. 한편 원재료 부족·가격 급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단가 DI는 7개 업종, 판매단가 DI는 8개 업종에서 과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키타칸토』『호쿠리쿠』『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가 악화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관련된 악재가 서서히 완화되어 『토카이』가 10개 지역 중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공사 및 인파의 증가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모두가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 2021년 12월의 동향 : 회복경향 >

2021년 1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3.9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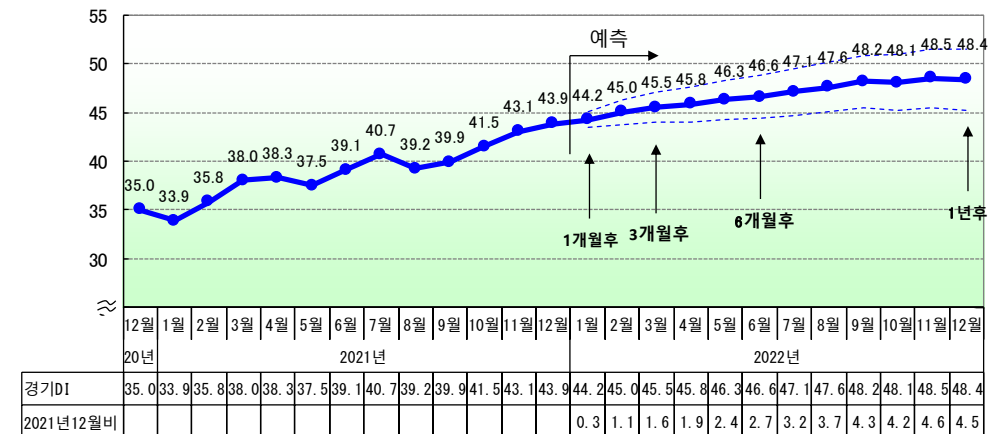
12월의 국내경기는 부품 등의 공급계약이 일부에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51개 업종 중 29개 업종에서 신종코로나쇼크 전인 2020년 1월의 수준을 상회하였다. 외출 기회 증가로 의류 및 오락 서비스 등 개인 소비와 관련된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은 계속해서 호조로 추이하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사업 단가 상승 경향은 기업의 수익환경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농·임·수산업에 있어 생유(生乳)의 공급과잉 및 사료 급등 등도 있어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경향이 계속되었으나 업종간 회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 < 향후의 전망 : 회복경향 >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의 감염동향에 좌우되는 한편, 대면형 서비스 소비 및 자동차 등의 생산도 서서히 회복이 예상된다. 기업 업적 개선과 함께 설비 투자 의욕이 상승 경향에 있어 설비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복소비 및 왕성한 자택 내 소비가 계속되고 5G 관련 환경정비, 반도체 수요의 증가, GoTo 트래블의 재개, SDGs로의 대응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원재료 가격 급등·계속된 높은 가격은 큰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 게다가 해외경제의 회복력 둔화도 우려요소이다. 감염 확대 방지와 활발한 경제활동의 균형이나 인력 부족감 고조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는 변이종의 감염동향에 좌우되나 완만한 회복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